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2022.1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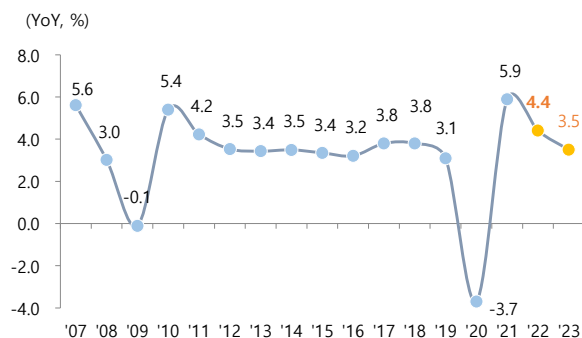
황원정 | 책임연구원(3705-6156)

- 세계(-): 2분기 이후 오미크론의 부정적 경제영향이 완 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고물가 지속 및 노동시장 개선 등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긴축기조 강화 추세.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은 유로존 등에 충격을 줄 수 있어 향후 추이에 유의할 필요(Bardays)
 - 미국(-0.1%p ↓): 오미크론으로 ①서비스 소비 약화, ②공급망 회복 지연에 따른 재고 축적 둔화 가능성. 급격한 금융여건 악화, 코로나19 신규 변이 출현 위험 등도 하방 리스크(Nomura)
 - 약 \$2.5조의 초과저축이 재정부양책 축소에 따른 소비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기대(GS)
 - 유로존(-0.1%p ↓): 에너지가격 등 물가 급등으로 ECB의 조기 통화긴축 가능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가계 실질구매력 하락, 오미크론 확산 등에 따른 소비 둔화가 우려(Citi)
 -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고조는 역내 교역 부진, 금융여건 악화, 천연가스 공급 축소 등을 통해 유럽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소지(GS)
 - 중국(-): 中 정부가 정책기조를 완화적으로 선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 개최 관련 방역 강화, 부동산 시장의 신용경색 악화 등 성장 제약요인이 상당(Nomura)
 - 일본(-0.4%p ↓): 오미크론 급증으로 일본 GDP의 90.1%를 차지하는 지역에서 준(準) 비상조치가 시행 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조치 연장 시 서비스 소비 약화 등으로 성장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Barclays)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명	2022 ^f	2023 ^f
Barclays	4.2	3.7
BNP Paribas	4.8	3.8
BoA-ML	4.3	3.4
Citi	4.1	3.1
Goldman Sachs	4.3	3.6
JP Morgan	4.6	3.6
Nomura	4.0	3.4
Societe Generale	4.2	3.7
UBS	4.7	3.6
평균	4.4(-)	3.5(-)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 전년대비, 구매력평가(PPP)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각각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1Q	22.2Q	22.3Q	22.4Q		
Barclays	1.5	4.0	3.5	2.5	3.7	2.4
BNP Paribas	-	-	-	-	4.8	2.8
BoA-ML	1.0	5.0	3.0	2.0	3.6	2.0
Citi	1.8	3.6	3.1	2.3	3.6	1.8
Goldman Sachs	0.5	3.5	3	2.0	3.2	2.2
JP Morgan	1.5	4.0	3.5	2.5	3.7	2.5
Nomura	2.5	4.5	3.8	2.0	4.1	2.1
Societe Generale	3.4	2.7	3.2	2.8	3.4	2.8
UBS	2.9	4.1	3.2	2.8	4.0	2.6
평균	1.9(-1.4)	3.9(0.2)	3.3(0)	2.4	3.8(-0.1)	2.4(0)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1Q	22.2Q	22.3Q	22.4Q		
Barclays	0.7	6.2	5.1	3.3	4.1	2.9
BNP Paribas	-	-	-	-	4.2	3
BoA-ML	2.6	3.0	2.7	1.9	3.6	2.1
Citi	1.2	3.8	4.1	3.4	3.5	3
Goldman Sachs	1.2	6.9	3.5	2.8	4.1	2.6
JP Morgan	2.0	8.0	5.0	3.5	4.7	3.1
Nomura	1.2	3.2	2.0	2.0	3.2	1.9
Societe Generale	3.0	3.3	2.8	2.0	4.2	2.3
UBS	1.6	7.8	2.8	2.6	4.2	2.3
평균	1.7(-0.8)	5.3(1.2)	3.5(0.3)	2.7	4.0(-0.1)	2.6(0.1)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1Q	22.2Q	22.3Q	22.4Q		
Barclays	5.0	4.5	5.1	4.3	4.7	5.3
BNP Paribas	-	-	-	-	5.3	5.5
BoA-ML	(3.9)	(5.0)	(4.8)	(5.2)	4.8	4.8
Citi	3.8	4.3	4.8	5.7	4.7	4.8
Goldman Sachs	3.6	4.3	5.2	4.8	4.5	5
JP Morgan	(4.3)	(7.0)	(5.5)	(5.5)	4.9	5.3
Nomura	2.9	3.8	5.1	5.1	4.3	4.7
Societe Generale	4.2	4.6	5.0	5.2	4.8	5.3
UBS	4.7	5.2	6.1	5.6	5.4	5.0
평균	4(0.1)	4.5(0.2)	5.2(-)	5.1	4.8(-)	5.1(-)

* 분기별 전망은 전년동기대비, ()는 전기대비 연율. 평균은 전기비연율 값을 제외하고 계산.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평균의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1Q	22.2Q	22.3Q	22.4Q		
Barclays	0.0	1.6	1.2	0.3	2.7	1.8
BNP Paribas	-	-	-	-	2.9	1.7
BoA-ML	0.4	7.9	4.7	0.2	3.2	1.6
Citi	1.0	6.2	3.1	1.6	3.0	1.7
Goldman Sachs	2.5	3.0	2.2	1.4	2.4	1.6
JP Morgan	1.5	6.0	4.5	2.5	2.8	2.0
Nomura	1.1	11.0	4.7	3.1	3.5	2.7
Societe Generale	4.6	3.7	2.6	1.0	3.3	1.4
UBS	4.4	6.6	1.8	1.6	3.0	1.4
평균	1.9(-3.6)	5.8(1.7)	3.1(1)	1.5	3.0(-0.4)	1.8(0.4)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56 혹은 wjhwang@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